

종합

광주시 내년 예산 3조 돌파

올해보다 6.1% 증가 ... 3조279억원 상정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3조 279억원을 편성,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2조8530억원 보다 1749억원(6.1%)이 증가한 것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내년도 일반 회계는 올해 예산 2조1651억원 보다 1752억원(8.1%)이 증가한 2조34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6879억원 보다 3억원(0.1%) 감소한 6876억원이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경제분야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138억원, 가전로봇 특화육성 94억8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9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보전 70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햇살론) 각 40억원, 광산업융합기술 인프라구축 34억원, 2011 디지털비엔날레 30억원 등이다.
문화분야에서는 CGI센터 건립 150억원, 야구장건립 100억원, U대회조직원회 운영 72억원, 전문체육진흥 61억원, 진월국제테니스장 건립 51억원, IT사이언스스퀘어 건립 24

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준비 15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교통분야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87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유가보조 630억원, 주거환경 개선 98억원,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 70억원,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51억원, 도시근린공원시설개선 30억원, 광주천자연형하천 정화 11억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1668억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1658억원, 기초노령연금 87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64억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62억원, 장애수당 40억원, 5·18교육관 건립 30억원, 광주민주인권광화 지원 21억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20억원 등이다.
이밖에 교육청 재정지원금 1971억원, 5개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1942억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100억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56억원, 소방학교 신축 25억원 등이 반영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보성 국도 29호선 11일 완전개통

광주와 보성을 잇는 국도 29호선이 확·포장 공사를 끝마치고 오는 11일 완전 개통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29호선 화순군 이양면 구간 8.5km(이양~농주 1공구) 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

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2002년 11월 착공해 총공사비 981억원을 투입했으며 구간 내 신설된 주요 시설물은 터널 1곳(445m)과 교량 11개교(1022m)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노후 아파트 이례적 매입

광주시가 지어 진지 27년이 지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매입해 허문 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아파트를 직접 매입,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들의 수동적인 주택개발 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불경기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재건축 수요가 지지부진하면서 노후 아파트는 갈수록 증가

지자체론 처음 화정동 영화아파트 20세대 안전진단 'E등급' 붕괴 우려 ... 주차장 활용 유사 아파트들 "우리도 ..." 요구뎀 큰 부담

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후아파트 매입이 자칫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8일 "지난 2005년 안전진단 결과 '보수해도 거주하기 어려운' E등급을 받은 서구 화정동 영화

아파트 101동(20세대)을 매입해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아파트는 지난 2001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뒤 별다른 보수를 하지 못해 결국 벽면이 기울고

를 거쳐 각 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아파트 102동 이외에 1979년에 지어진 서구 삼익아파트 1·2동(276세대), 1981년에 건립된 남구 장미아파트 1개 동(20세대) 등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또 광산구 송정동 주공아파트(건축연도 1983년), 삼촌동 쌍촌아파트(1975년) 등은 대표적인 지역 내 노후아파트로 분류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 내 노후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기술이전 협의회 업무 협약 광주 기술이전 협의회 업무 협약식이 8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남원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무안공항 상생 기구 만들자”

강운태 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에 제안

강운태 광주시장이 8일 전남도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선 5기 들어 광주시가 공공연히 광주공항 국제선 재유치를 주장하면서 전남도와 미묘한 갈등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전남도는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가 전달되면 검토해보겠다"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 석상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을 없애기 위해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광주공항·무안공항 상생협력기구를 구성해 공항문제를 지역 내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된 뒤 광주공항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광주~김포 노선이 자연스럽게 폐지되면, 그 이후에는 제주 및 인천노선, 전세기를 특화시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군공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장관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으며 군공항 이전대상지가 선정되면 곧 이전에 나설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9년 무안공항이 착공하자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12)에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생생 자치 광주시·전남도 간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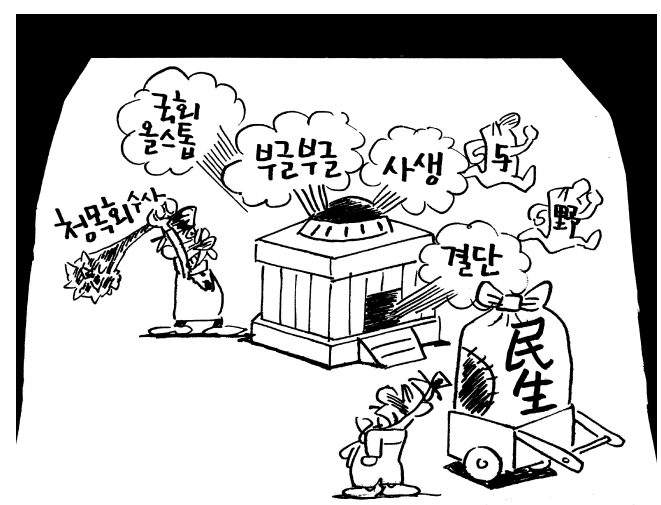
“MOU기업들 왜 투자 미루는지 알아봤나” “KTX 노선 무안공항 경유 적극 나서라”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대책과 투자유치(MOU) 체결 기업체 관리 등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 무안공항 경유가 절실한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광주시=도시디자인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사업비 26억원을 추가로 확보, 538가구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강 시장은 "상징적이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창출지원관은, 구직자는 직장이 없고 구인업체는 일할 직원이 없는 '일자리 미스 매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시장은 직업훈련원 교사와 학생,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대책이 잘 적용되고 있는 지 통계를 마련하고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 3·5기 투자유치각서를 맺은 기업 중 실제투자를 미루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왜 투자를 미루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일은 때가 있고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방향 설정은

잘됐으니 반발적인 더 나가면 광주공동체는 비상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남도=박 지사는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KTX가 거쳐가도록 하는 게 절실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가 다음달 6일까지 정부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는 만큼 광주공항 국내선이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돼야 한다는 전남도 의견에 KTX의 무안공항 경유를 포함시켜 건의하라는 것이다.
전남도가 그동안 정부 입장과 같은데, 변화도 없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박 지사는 또 '3농정책' 브랜드화를 위해 '3농정책'이라고 쓰인 엠블럼 활용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 아니냐. (엠블럼) 만들어 어디에 쓸까"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2010 문화바우처 사업을 소개합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 자활, 장애, 한부모)
○ 신청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에 회원가입(무료) 하신후,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예매 후 관람
○ 지원포인트: 5,000포인트(회원가입 후 정회원일 경우)
○ 지원내용: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도서지원
○ 이용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무료) 후 로그인 → 지역프로그램 검색 →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 후 예매 →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확인 후 티켓수령
○ 지원서비스: 버스 및 식사가 지원됩니다.
단,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나 산간벽지는 지역 주관처(전남문화예술회관)와 협의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Includes details about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eju Mt. Mugunghwa Travel.